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5~3/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2	도법스님의신심명강의:중도연기의눈으로본깨달음의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7	붓다의근본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1)	이철헌 엮음	아름원
3	은정희교수의대승기신론강의	은정희 지음	예문서원	8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4	궁금해요불교:매주제마다문제풀이를통해	도업 지음	운주사	9	역주수능엄경	일귀/무비감수	샘이깊은물
5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10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격동의 역사속 주요 인물 염주 만들듯 형상화



염주
유응오 지음
백조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신문 기자 출신인 유응오 작가〈오른쪽 사진〉는 부지런한 글쟁이다. 잠시 연락이 뜸해 안부가 궁금해질 무렵이면 영락없이 신간이 보내져 온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생 경험처럼 그의 글감 역시 폭넓다. 영화 평론부터 역사소설까지. 타고난 글재주로 쉽게 버무린다.

2007년 〈한국일보〉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유 작가가 이번에는 장편소설을 들고 왔다. 제목은 〈염주〉이다. 이번 소설은 〈하루코의 봄〉 출간 이후 6여 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이다. 이번 책 〈염주〉는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에서 정치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의 삶을 염주 알을 꿰서 염주를 만들 듯 형상화 했다. 특히 이 작품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지속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반목을 화쟁(和諍)과 화엄(華嚴)이라는 불교사상에 입각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불교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

〈염주〉는 한마디로 박헌영의 아들인 故 원경스님과 빨치산 토벌대장인 차일혁의 교차 시점으로 구성된 팩션(Faction) 소설이다. 원경 스님의 시점에서는 박헌영 이현상 김상룡 이주하 주세죽

갈등을 화쟁사상에 입각해 상생 길 모색
원경스님과 차일혁의 교차시점으로 구성
인간 존재 고민의 답으로 불교 사상 제시

등 남북 양측서 버림받은 남로당계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한다. 또한 차일혁의 시점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빨치산과 토벌대의 인물들이 나온다.

1980년대 이후 출간된 빨치산 문학 내지는 정치소설들이 지나치게 고발적이거나 정파 투쟁적 관점에 빠져서 메마른 몸피를 보였다면, 〈염주〉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불교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이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역사소설' 이자 '정치소설' 이며 '불교소설' 인 〈염주〉는 자본주의 일상의 퇴폐적이고 쇄말적인 인간상의 미시문학이 판치는 근래 한국 문학계에 보기 어려운 거대 담론의 성격을 띤 작품이다. 특히 불교적인 사유가 충만한 유응오 작가의 문체는 '오동향로(烏銅香爐)에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 처럼 작품의 깊이와 풍미를 더하고 있다.

1950여 년부터 2020여 년까지를 유장한 시대 배경으로 하는 〈염주〉는 시간적 배경만큼이나 공간적 배경도 웅장하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모스크바, 크질오르다 유형지를 넘나드는 이 소설은 신냉전 체제를 겪는 대한민국의 독자들에게 미래의 한반도 청사진을 제시한다. 〈염주〉는 과거사 일화들을 통해 이념 논쟁이 뜨거웠던 한국 근대사를 간접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엄(華嚴)의 역사' 와 '화쟁(和諍)의 정치' 라는 미래 시대의 담론을 역설하고 있다. 1970~80여 년 전 좌우로 반목한 한반도 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시대의 공업(共業)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고 작은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염주〉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화엄(華嚴)의 역사' 와 '화쟁(和諍)의 정치' 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게 유응오 작가의 집필의도이다.

김용락 시인이자 前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은 추천평을 통해 "낱낱의 염주 알이 모여서 이 염주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염주는 여럿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여럿이이라는 원경 스님의 대사는 종교의 저열한 허무주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공동체와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인간 실존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작가의 치열한 고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소설 일각의 내용 없는 무료함과 따분함의 세계에서 벗어나 소설과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해 준 소설"이라고 피력했다.

묵직한 '서사의 힘'…탄력성 문체 몰입감 높여



검은입흰귀
유응오 지음
백조 펴냄/1만5천원

〈검은 입 흰 귀〉는 최근 한국 문학서 찾아보기 힘든 묵직한 '서사의 힘' 이 느껴지는 작품집이다. 유응오 소설가는 등단한 이래 꾸준히 자신만의 문체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무하는 이야기를 써왔다.

특히, 유응오의 문장은 함축적이면서도 상징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하다. 이러한 탄력성 있는 문체로 인해 작품의 몰입감을 높인다. 단단하게 응축돼 있어 유응오의 문체는 소설적이라기보다는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오랜 세월 불교계에서 활동한 소설가답게 작품집에는 불교적인 주제와 제재의 작품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태초부터 자비가 충만했으니〉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는 인생사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묻고 있으며, 〈금어록〉은 한 화승의 삶을 통해서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 이 원융하는 경계를 모색한다.

〈하나인가? 둘인가?〉는 천녀이혼 화두를 제재로 활용해 '갇힌 자의 자유' 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으며,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제재로 '산 자와 죽은 자' '피해자와 가해자' 가 만나서 나누는 상생의 장을 연출한다.

소설집을 다 읽고 나면 이 세상이 온통 비극이 미만해 있는 무간지옥인 것처럼 느껴진다. 〈검은 입 흰 귀〉는 유응오 소설가가 이 혼탁한 흙탕물에서 연꽃을 피워내고자 분투한 흔적의 산물이다. 사람들의 허다한 아픔을 보듬는 유응오 소설가의 위안의 말을 들음으로써 독자들의 가슴에도 '진흙 속의 연꽃' 이 피어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모든 소설가가 독자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여러 장치들을 소설 속에 심어 놓곤 한다. 심상치 않은 등장인물들이 끌고 가는 이야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에 휩싸인다.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고조되는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새 야바위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뒤통수를 어루만지게 된다. 〈검은 입 흰 귀〉에 실린 9편의 작품들은 세상의 끝에 몰린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 거친 소재들이 주는 강렬함에 이끌리다가도 시적인 문장에서 읽히는 서정과 탄력성에 넋을 놓게 된다.

이승하 문학평론가는 추천사를 통해 "유응오 소설가의 첫 소설집 〈검은 입 흰 귀〉는 작은 인연에도 소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서로가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된다"며 "무엇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게 만드는 문장들은 서사시를 읽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인간의 수다한 인연을 살펴서, 허다한 아픔을 보듬어서, 위안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유응오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저자 **유응오 작**가는?

197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고,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중앙대 의혈창작문학상, 숙명여대 범대학문학상, 영남대 천마문화상 등 전국 대학생 대항 문예공모전에서 시가 당선되었으며, 200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주간불교신문〉 취재기자로 근무하며, 학위 위조 사건을 보도해 한국불교기자협회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장편 소설 〈하루코의 봄〉, 영화 평론 〈불교, 영화를 만나다〉 등을 출간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 산 사
홍 련 암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 (033)672-2478(홍련암) www.naksansa.or.kr

